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베드로전도회 주관의 예수사랑 나다나엘 초청잔치

불신의 친구를 초대, 5월 6일(토) 만나홀에서

우리 교회 40대 남성들로 구성된 베드로전도회에서는 전 회원이 5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나다나엘 초청잔치를 열기로 하고 모든 준비를 끝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전 베드로회원이 참여하여 전도의 열기를 새롭게 하려고 모이는 이 초청잔치는 회원 각자가 불신친구를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 것과 루디아, 마리아 전도회 회원중 베드로회원에 해당하는 불신남편을 초청하는 것, 베드로전도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 등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월 6일 오후 5시부터 만나홀(선교관 지하1층)에서 실내악 연주가 진행되는 중에 식사를 함께 하고 식사 후 예배(설교에 김창인 원로목사)를 드리고 교회 소개를 하는 시간, 친교의 시간 등을 갖게 된다.

특히 이날 새로 초청된 불신의 친구들에게는 신구약합본 성경책을 선물로 준다.

또한 이날 모임이 끝난 후 각 지회마다 5월 월례회를 가지기로 되어 있어 교회 내 40대 남자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된다.

이번의 이런 전도방법은 평소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이웃을 전도하는 좋은 방법으로 초청하여 좋은 분위기에 서 식사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없앨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므로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도 큰 것이다. 이런 전도법을 베드로전도회 전체가 할 수도 있고 각 교구 단위로 또는 구역 단위로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예수사랑 큰잔치가 해가 거듭되면서 운동본부에서의 계획과 지시 외에도 각 지회, 각 교구 등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전도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각 개인과 각 지회에서 각자에 맞는 최선의 전도법을 개발하여 열심으로 임한다면 생각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새가정부, 5월 가정세미나 개최

5월 7·14·21일, 오전 10시 10분 갈릴리홀

교회학교 새가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첫주, 둘째 주, 셋째 주 3주 동안 집회시간(오전 10:10 ~ 11:10)에 갈릴리홀에서 가정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리스도인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가정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세미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지난해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세미나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금번 세미나에도 가정사역 전문 사역자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열게 된다.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5월 7일 '사랑이 충만한 가정' (현순원 전도사, 상담교육원 원장)
- 5월 14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손길원 목사, 부산새중앙교회 협동목사)
- 5월 21일 '가정은 우리 낙원' (김수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95 예수사랑 큰잔치

5월 6일(토), 포스터그리기 대회

본당 앞 집결 후 교회 뜰 내에서

'95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에서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이를 앞두고 전 교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5월 6일(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릴 이 포스터 그리기대회는 교회학교 전 학생은 물론 일반 교인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 당일 오후 3시 본당 앞에 집결하여 대회요강을 듣고 도화지를 분배받은 후 교회 뜰 내에서 자유롭게 포스터를 그리게 된다.

주제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줍시다'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정성껏 나누며 전도하여 그들을 올해의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청하고 인도하는 의미를 담은 그림이면 된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제1부문은 초등3부까지 제2부문은 초등4-6부, 제3부문은 중등1부 이상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우수작 및 전체 최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입선된

그림은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교회의 게시공간을 이용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제3회 장애인복음화대회 가 지난 4월 25-27일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애인들은 말씀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방향들을 생각하며 보람있는 날들을 보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수요예배에서 장애인들은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볼 것을 말씀하며 장애인의 사명을 확인케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 (사진/장애인과 봉사자)

일만명이 한사람씩 일만 영혼 구원한다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주요 일정

- 특별새벽기도회 / 5월 22일(월) ~ 5월 26일(금)
- 초청전도집회 / 6월 7일(수) ~ 6월 9일(금)
- 예수사랑 큰잔치 / 6월 11일(주일) E-V부 예배

-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기도제목 -

-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교회와 개인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 태신자를 바로 정하게 하시고 결실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 모든 전도운동, 기도운동들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 9595 95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매일 오후9시부터 5분간 기도합니다. 9595 ·

금주의 교회행사

1. 예수사랑 큰잔치 기도회

교역자 / 5월 2일(화)
교역자 회의 후 국제회의실에서

안수집사 / 5월 1일(월)
2부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구역장 / 5월 3일(수), 본당에서

부지역장 / 5월 3일(수), 갈릴리홀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안수집사(5/1, 월), 교역자(5/2, 화), 구역장(5/3, 본당), 부지역장(5/3, 갈릴리홀)이 각각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해당자는 필히 참석하여 힘을 모아야 하겠다.



총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34 ●

하나님의 진노

(계 15:1-8)

15 장에서는 일곱번째 나팔재앙인 일곱 대접재앙의 서론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16장에 나옵니다.

1. 일곱 대접재앙의 서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15:1) 본문의 하나님의 진노, 즉 일곱 대접재앙은 인류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7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독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의 반대가 진노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이고 숨김없이, 착오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오하고 무서운 말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

구약시대에는 첫째 종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그의 선민 사이에 연약이 있는데, 이것을 선민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둘째 횡적인 관계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특히 바벨론이나 앗수르 등 이방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경건치 않음과”라고 했듯이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불경건할 때, 즉 종적인 관계가 잘못될 때 임합니다. 둘째는 “불의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횡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진노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종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연약이 깨어질 때,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할 때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게 될 때에 있었습니다.

3. 어린 양의 노래

2절에서 4절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승리자만이 부르는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라고 했습니다. 즉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잠이나 치러 다니고,

이상한 예언기도 받는다 하고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지 않습니다. 둘째는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탄의 숫자인 666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까? 출애굽기 15장이나 32장에 보면 모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홍해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히 씻김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구원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4. 불이 섞인 유리 바다

본문에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유리 바다가운데가 아니고 바닷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리 바다를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리 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곳이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처럼 씻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리 바다는 거울에 얼굴이 환하게 보여지듯이 그것을 통과할 때는 그 사람의 죄가 모두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폐결핵에 걸리면 걸으로는 모르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결핵균이 폐를 감아먹은 것이 다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유리 바다를 통과할 때 우리의 죄가 흰히 나타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유리 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환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죄인들은 불붙는 유리 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나 지나갈 수 없고 오직 죄없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럴 불붙는 유리 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말씀의 물로 깨끗이 손발을 씻은 사람만이 유리 바다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리 바다를 통과하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5.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3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우상에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정절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정절이 있는 자는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항상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그 입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흠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크고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 주여, 당신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셋째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참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전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로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넷째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4절)고 했습니다. 만국이 와서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예배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루종일,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6. 또 다른 환상

5절 이하를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내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에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라고 했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곱 천사의 모습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듯이 천국에서도 입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냥은 못갑니다. 반드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

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얀 의의 세마포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금띠는 왕, 대제사장이 띠는 띠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설 것입니다. 금띠를 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죄가 없는 성도들만이 통과할 터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그렇습니다. 이 유리 바다를 통과하려면 다섯 가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상에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정절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절이 있는 자는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 세속주의에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항상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그 입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흠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흠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될 때, 의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가 없고 그 진노에서 다 벗어나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나의 전도 체험기 □

관계전도에 집중하며

임기채

<집사, 청년2부 부감>

나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군복무중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누구보다 구원의 감격이 컸다. 생각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나였으며 어두움의 생활이었으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를 부를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며 마음이 몽클해 지곤 한다.

이렇게 복음에 감사하면서도 복음에 빛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지만 막상 접근하면 쉽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순간 적당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컸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전도훈련을 받아보았지만 전도훈련 받을 때만 그렇지 그 후로 쉽지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해(88년)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후부터 가장 무겁고 힘들었던 전도의 벽이 무너져 전도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점검을 해보니 문제

가 많이 생겼다. 전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에까지 와서 등록하고 교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리한 방법대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려준 후 몇 부 예배에 참석할 것인지, 예배 참석 후 만나자 하였더니 그때는 대답하였으나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교회는 크고 하니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막상 와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 당황하였다. 그뿐 아니라 지속적인 보살핌(양육)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전도에 집중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이너스 전도법을 활용하여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전도하기로 했다. 평소에 알던 사람을 전도대상자로 정하고 그와 꾸준히 교제를 가지며 때가 되었을 때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힘들다 하면 차를 보내주기도 하였고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찬송가를 찾아 같이 부르며 예배

를 드렸다.

이처럼 교회에 출석한 사람과는 계속 교제를 가지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성수대교 참사,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최근 형수가 결장암으로 죽었던 일),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 분을 알렸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하며 1주일에 성경 1장을 읽어 오도록 하여(신약에서 요한복음) 그곳에 기록된 내용중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였으며 그 분이 강조하여 가르쳐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을 나누며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도움의 필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만났을 때 기도응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면 무척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는 전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양육까지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입장에서 신앙적 근과 성장을 인내하면서 관심을 갖고 대화되 진실한 사랑으로(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되새겨 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양보하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지 않는가?) 돌보면서 계속 교제를 유지해 나갈 때 변화가 생겼다. 문제는 나 자신이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늘 전도대상자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뿐이다.

◀ 부활절 음악예배를 마치고 ▶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형수

(집사, 아멘찬양대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음악예배를 준비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대원들은 서로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음악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곡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 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었다. 우리가 그 전에 연습해 오던 곡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곡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간절한 기도뿐이었다. 금요일 정기연습과 화요일 특별연습 시간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기에 충분했다. 화요일 특별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 자신의 신앙의 열매를 확인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음악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고 정성을 다해 연습에 임했다. 연습의

열기는 점점 더해 갔고 연습 도중에 은혜를 받아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는 대원들도 생겼다.

찬양예배 시간이 다가왔다. 남자대원에게 검은색 나비 넥타이가 나누어진다. 나비 넥타이를 매는 순간부터 기분이 야



릇해진다. 결혼식 직전의 설레임과 경건함이 온 몸을 감싸고 돈다. 나를 향하여 걸어 올 신부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예배시간을 기다린다. 지휘자의 싸인에 따라 첫음을 내는 순간 나의 신부는 나의 곁에 있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교회당 안이 점점 어두워지고 O.H.P로 보여준 고난 당하시고 죽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성도들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찬양대원들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가슴으로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을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음악예배를 준비하면서 음악적으로 더욱 나아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었다. 교회 찬양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모인 곳이다. 뛰어난 음악성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세울 수도 없는, 음악적으로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합창단이지만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울통불통하고 삐죽삐죽한 우리를 다듬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나비 넥타이를 풀어 놓는다. 연주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어져서인

지 온 몸이 나른해져 오지만 우리 모두는 힘차게 외치고 싶었다.

“아멘찬양대 화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럼 / 역심동에서

늦으면 안된다

박승준

(장로, 감사위원장)

잔인한 달 사월은 막을 내리고 내일이면 오월 가정의 달이 시작된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이라면 안방도 내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른들인데 대부분 교회의 교육공간은 비좁고 시설투자는 그만이고, 성인숫자만으로 교세가 판명되는 것이 우리의 기막힌 현실이다.

이 틈을 비집고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파괴와 음모는 마구 공격해오고 있다. 로잔언약 제10항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인간의 문화는 아름답고 선하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모든 문화는 죄로 더럽혀져 있고 일부는 마귀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 문화라는 말이다(창 1:26). 문화명령이 인간문화의 첫 기원이 된다. 사탄은 대중문화라는 매체를 선택했다. 마이클 잭슨이 10월에 잠실체육관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는데 무려 십육억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가 부른 노래 빛잇에서 '나는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분명히 믿어요', 국내 모 가수의 백 메스킹에도 '내 속에 있는 사탄을 영원히 사랑해요'라는 말, 명상과 혼합종교 범신론에 기초한 뉴에이지 문화의 증가와 사탄 찬양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탄문화의 실체, 어디 이 뿐인가!

음악, 영화, 광고, T.V, 문학, 패션, 비디오, 놀이문화, 연극, 신흥종교 등 각 분야 속에 사탄은 자신의 메시지를 주입시켜 놓고 있다. 악령이, 사탄이 몰려온다. 더러운 영이 문화없이 한시도 참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세계로 쿵쿵 전이되고 있다. 이제 머뭇거리고 궁금해하고 비판하고 따질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본래 뉴에이지라는 용어는 새 시대, 새 세계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활운동과 같은 인상을 풍기므로 젊은이들에게 어떤 매력 호감마저 느끼게 한다. 뉴에이지는 반 성경적이지요, 반 기독교적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명상에 빠져 요가나 기공, 단이나 선과 같은 뉴에이지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영화 '악마의 인형', 문학 '배짱', T.V 미니시리즈 'M', 음악 '디셈버' 등 작품을 소개할 지면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시작은 우연이지만 결말은 예상치 못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의 수가 천만이 넘는다는 이 땅에 변질과 왜곡된 구원이 간강 증진, 능률 향상, 오락 추구 등 무제한으로 다가온다면 극단적 이단자, 광신도들을 바로잡아줘야 할 우리들이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닐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고 영성이 둔화된 탓일까. 일류 미션스쿨, 현대식 병원도 제일 먼저 가졌던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베스트셀러, 베스트 무비 하나 못내니 어찌 2000년대를 준비하겠는가? 기독교문화는 실종된 것인가? 교계 지도자들의 영향력과 개교회가 나설 차례다. 더러우면 치워야 하고 위험하면 바뀌어야 한다. 돈을 바로 쓸 줄 알아야 할 때가 지금이다. 문화사역자를 양육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기독교화를 접목시켜야 한다. 문화선교비도 신실해야 한다.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용기,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지만 사탄문화를 정복하는 성령의 역사로 옥토가 되자! 아름다운 크리스찬 문화가 이룩되려면 분별력있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벧전 5:8)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위해 물어보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란다. 살람

토·막·소·식

◆ 유아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전도왕 시상을 한다. 금은동의 전도왕도 뽑으며 1명 이상씩 전도하여 다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 중등1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교사 연속기도회로 모인다. 5월 12일(금)~6월 10일(토)까지 교회에서 모여 기도도 준비하려고 한다.

구형 (286, 386) 컴퓨터 구입합니다

컴퓨터가 날로 발전해감에 따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 컴퓨터(286, 386)를 수집합니다.

이것으로 교회의 각 교회학교에서는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국(교육관 103호)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552-8200(교한 503-

◆ 고등부는 공과공부 후 11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소그룹 연합기도회로 모인다. 아멘홀에서 모이며 고등부 회원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 대학부는 5월 4, 5일에 성령의 대학부

작은 수련회로 모인다. 장소는 충현기도원.

◆ 청년2부는 반별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갖는다. 곡은 찬송가와 복음서가 중에서.

◆ 장년3부는 5월 28일 로마서 8장 18~39절을 범위로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다.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바라고 있다.

◆ 새가족 양육부는 오늘 총출석주일로 잃은 양, 장기결석자를 대상으로 전도운동을 펼친다. 또한 5월 14일은 성경암송대회로 시편 1장 1-6절, 시편 23장 1-6절, 고린도전서 13:4-13절 중 하나를 택해서 암송하면 된다.

◆ 가브리엘찬양대는 5월 5일 우이동 계곡에서 춘계야외예배로 모인다.

◆ 아멘찬양대는 5월 5일 미사리울림피조정경기장으로 야외예배를 떠난다. 가족동반으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 핸드벨과이어에서는 단원을 모집한다. 5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좌측

교회 직원모집

1. 사무직(사무, 구매, 사무 기타)
2. 인 원 : 남 O 명(30세 이상)
여 O 명(여성 졸업자로 PC 가능자)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타교인은 세례증명서 1부,
운전면허 소지자(남)
4. 기 한 : 1995년 4월 30일 한
5. 제출처 : 사무국<552-8200(402)>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신성중 목사 : 5/1(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5/2(화) 대전지역 목회자 세미나 강의
5/5(금) 삼양교회 이조웅 목사 위임예배 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시고 예수사랑 큰잔치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옆) 3층 핸드벨연습실에서 Bell 테스트와 주기도문 독창이 있다. 대상은 국민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 3학년 이하의 남녀학생(남학생 환영)으로 피아노 체르니 30번 이상이면 된다.

◆ 제5교구에서는 오늘 예수사랑 큰잔치에 앞서 효과적인 전도전략을 위해 전도특강을 마련했다. '전도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홍성 목사가 전하며 교구모임 장소인 봉사관 101호에서 모인다.

“이 준교 선교사님! 더운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선교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간충현 3월 19일자 제3면에 실린 초등2부 23반 차현정 어린이가 저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주일학교 어린이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후로 볼 때 4월이면 낮기온이 섭씨 38도 이상을 기록할텐데 금년은 아직도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이상 변화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어느 애굽 현지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에 관한 이야기(행 18:1-11)도 하고 바울 선생님의 아테네 전도와 고린도 전도에 관한 사례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병어리 개(사 56:10)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병어리 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병어리 개를 무엇에다 쓰겠느냐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늘 저녁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노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자기가 기차를 타고 카이로에서 벤하(델타지역에 있는 중소도시)까지 가는데 열차 안에서 한 무슬림 청년이 한 시간이 넘도록 이슬람교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말 한 마디 하지를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하면서 갔노라고 그야말로 자신이 병어리 개였었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전도에 자신 이해할 할 일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선교지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지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집트 이준교 선교사 각국 선교부 합동으로 부활절 새벽예배 드림

난 4월 13일 카이로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우리 나라와 이집트가 정식 수교를 한다는 발표입니다(4월 14일 한국 신문에 일제히 보도 된 줄로 압니다). 1961년에 총영사 관계가 수립된 후 만 34년 만에 대사관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제일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집트와 수교하려고 지난 30여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성사가 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드디어 대대급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는 정치 외교 군사 등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회교권 선교의 차원에서도 단연 중동과 아프리카의 중심국가입니다.

몇 년 전에 카이로 한국 총영사관이 공관 자체 건물을 마련하였고, 작년에는 대사관저를 건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대저 1,0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아주 훌륭한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다음으로 자체 건물을 마련해야 할 차례는 카이로 한인교회라 믿고 이 일을 위하여 카이로 한인교회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작년에 1차로 건축헌금을 하였는데 미화로 약 1만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년초에 건축헌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카이로에 종합 선교관을 건립할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합선교관 건립 목적은 우리 충현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집트현지인 목회자 세미나를 이 선교관 시설을 이용하여 하려고 합니다. 현지 목회자 훈련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올라와 있는 수단인 형제들을 위한 선교를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이집트에 올라와 있는 수단인이 200만 내지 300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저들의 대부분이 난민입니다. 그런고로 저들에 대한 진료(의료선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의 목적은 한인교회 예배당 건축 및 한인 유아교육원(유치원) 운영입니다. 지금 카이로의 한국인 교민은 약 4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카이로의 한인사회 및 이집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입니다.

카이로 한인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기 때문에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와 형편이 비슷한 교회들이 독일인 교회, 영국인 교회

그리고 마아디 지역의 이집트인 교회도 자체 건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가 한 교회당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는 우선 자체 건물 마련 이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한인교회 봉사관으로 이름붙이고 금요일에 배 모임을 이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성경공부 모임, 도서실 운영 등을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 넓은 장소는 아니지만 40-50명이 모일 수 있는 홀이 있고 방이 세 개 주방시설까지 갖춘 아담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부활주일 새벽에는 미국인 교회, 카이로 한인교회, 독일인 교회 그리고 영국인 교회가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예배를 마아디 미국인학교(Cairo American College) 운동장에서 드렸습니다. 미국인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선교사가 기도순서를 담당하였습니다. 연합성가대의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애굽복음주의신학교는 지금 1994-95년도 제2학기 수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 말이면 거의 수업이 끝나고 학년말 시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제가 가르치는 교회성장학 코스에는 총 3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홉 명의 수단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학교 졸업식은 5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과 선교동역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집트와 이집트 선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이로에서 이 준 교 선교사 드림